

개혁주의 구약 성경 읽기: 열린 보수주의 신학합을 위하여 구약 읽기

최 만 수
(천안대)

서론: 열린 보수주의 신학으로서 개혁주의

한국 기독교에서 “열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 주체인 “보수주의”는 한국 기독교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보수주의는 무엇을 열고 배워야 하는가? 그 이전에 한국 보수주의 신학은 왜 열려야만 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은 상당히 답하기 곤란한 것이다. 한국의 보수주의 신학을 정의하는 것은 단순한 어느 한 가지의 방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라는 큰 흐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신학 신학 방법이 공존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신복운은 이 보수주의를 크게 3가지로 대별하는 데 (1) 근본주의, (2) 복음주의, (3) 개혁주의라고 정리하였다.¹ 그리고 한국 보수주의 신학자임을 자임하는 박아론은 한국의 보수주의 신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한국 보수주의 신학이라 함은 W.C.C.와 N.C.C.에 가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W.C.C.와 N.C.C.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에큐메니칼 신학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서 비판을 가하고 있는 한국에 있는 여러 복음주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신학을 뜻한다.²

하지만 한국의 보수주의신학이라는 큰 틀 안에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함께 자리를 한다. 세대주의, 경건주의, 신비주의, 신복음주의 등등이 그와 같다고 볼

¹ 신복운, “보수주의 신학”, in 『기독교대백과사전』, vol. 7 (16), (서울: 기독교교문사, 1982), 918-924.

² 박아론, 『보수신학연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271-2.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마치 하나의 “복음”을 가지고 한국에 대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동상이몽”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사상의 혼전은 좋은 의미에서 새로운 하나로의 “퓨전”(fusion)이 아니라, 서로 상이하면서 또 섞일 수 없는 신학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보수 신학은 자체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발전하여야만 한다. 하지만 이런 소망은 자체의 혼란에 대한 폐쇄성으로 일관하여 스스로의 정체성의 문제를 증폭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한국의 보수주의 신학은 그 폐쇄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 문을 여는 방향은 어떠하여야 하는가? 내부의 혼란과 외부의, 즉 자유주의의 맹렬한 공격에서 그 문을 여는 행위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한국의 보수주의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종교 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정통적인 기독교”임이 분명하다. “정통적인 기독교”라고 하면 무엇을 말할인가? 이것은 한국에 처음 선교사들로 인하여 전하여진 “청교도적 개혁주의”³ 기독교를 칭한다 하겠다.⁴ 한국에서 복음의 열정을 불태웠던 초기 선교사들의 대부분이 신학적으로 개혁주의 노선을 따른 것은 분명하다. 장로교신학대학교의 김인수는 “한국 교회의 갱신은 초기 한국 교회의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가는데 있다”⁵고 지적하면서 선교사들의 대부분이 미국의 New England 지방의 청교도 후손이었다고 지적한다. 또한 김인수는 지적하기를 한국 기독교의 모습에서 성경 제일주의, 사회 개혁 정신, 안식일 성수, 결혼의 순수성, 즉 일부일처제의 강조, 금주, 금연, 노름과 도박의 금지, 노예의 사용 금지 그리고 세례문답의 강조와 국가와 교회의 분립 정신 등이 선교사들로부터 전래되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⁶

³ 고신대학교의 교회사 교수인 이상규는 이 칭호에 있어서 한국의 개혁주의라는 명칭은 개혁교회 혹은 개혁신학이라는 말이고 그 명칭의 “-주의”라는 것은 중국의 Reformed의 번역에서 개혁주의가 한국에서 사용되었다고 보았다. 이상규, “한국에서의 개혁주의 신학”, 역사신학논총, 1 (1999), 388, n. 3을 참조하라.

⁴ 주재용(한국 그리스도교 신학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51-100)은 초기 선교사로부터 한국에 전해진 신학을 소위 “식민지 신학”이라고 매도한다. 이와 비슷하게 박아론(1993, 275)도 선교사들로 전해진 정통기독교를 “수입 신학”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하지만 박아론은 이 “수입 신학”이라는 정의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용하기에 그 사용의 의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⁵ 김인수, “한국 교회와 청교도주의: 한국 교회사적 입장” in 『한국기독교사상』, 한국 교회사학 연구원 편,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8), 355.

최근에 한국 보수주의 신학은 내부에서 그 “보수주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게다가 그 “보수성”이라는 폐쇄성을 오늘 변화하는 한국 속에서 개방되어지고 역동성이 있는 신학함을 요청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주의 신학의 구약 성경 읽기는 어떤 원칙 하에서 읽기를 할 수 있는가? 반대로 구약 성경을 읽기를 통하여 한국의 보수주의는 그 정체성을 세우며 그 지경을 넓히는 데 그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필자는 먼저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 문제에 접근하면서 근본주의 환경에서 자랐고 배웠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서도 서구의 학문 분위기에서 구약을 공부한 학도로서, 그리고 한국 보수주의(개혁신의) 신학이 그 목소리를 세계에 발하기를 소원하는 보수(개혁신의)주의 노선의 기독교대학의 교원으로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런 연유로 필자는 보수주의 구약 읽기 전략은 한국의 전통적인 기독교의 3가지 중심 사상 — 즉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에서 전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위에서 닫을 것은 닫고 열 것을 여는 것을 “열린 보수주의” 즉 “개혁신의” 구약 읽기라고 명한다. 그리고 이 논문에 있어서 주어진 논제와 논지의 효과적인 서술을 위하여 “최근 구약학계의 경향”에 대한 서술적인 작업은 시도하지 않으며⁶ 바로 본론적인 방법론적 전개를 통하여 논지를 확정하도록 하겠다.

1. 20세기 (구약)성경 읽기의 흐름

21세기의 그 역사적인 현장인 한국에서 시도하는 “열린 보수주의로서 개혁신

⁶ 김인선, “한국 교회와 청교도주의”, 355-377. 특이하게도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교수인 원종천은 이 청교도 정신의 원류를 언약 사상에서 연구하여 “16세기 영국 청교도 언약 사상 형성의 역사적 배경”(215-246)이라는 논문을 역사신학논총에 발표하였다. 그 논문에 의하면 청교도의 언약 사상 역시 종교 개혁가인 쾰링글리와 칼뱅에게서도 나타난다고 한다.

⁷ 한국의 전통적인 기독교의 중심 사상, 즉 개혁신의 신학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고신대학교 교회사 교수인 이상규의 “한국에서의 개혁신의 신학”, 역사신학논총, 1(1999), 388-393을 참조하라.

⁸ 최근 구약학계의 경향은 다음에서 잘 소개되어지고 있다. Gerhard F. Hasel, 구약신학: 현대 논쟁의 기본 이슈들, 김정우 역,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3), 구약 개론적인 접근은 이 학제, 「구약성경에서 배운다」(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1)를 참조하라. 그리고 한국 복음주의 신학에서의 최근 구약학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다음에서 볼 수 있다: 최종태, “구약을 어

의 구약 읽기”에 대하여 그 내용적인 면을 생각을 하기 전에, 한국 개혁주의 구약 읽기의 독자적인 목소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자리 매김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20세기의 성경 읽기의 흐름을 알아보고자 한다.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찾는 데는 대체적으로 3가지 즉 (1) 저자, (2) 본문, (3) 독자라는 큰 축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겠다. 하지만 지난 세기를 돌아본다면 이 축들은 서로의 보완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특한 전략적인 강조점을 이루어서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찾는데 핵심(key)을 이루었다.

1) 저자 중심의 (구약)성경 읽기

첫째로, 20세기 초반에는 성경 읽기는 저자를 강조하여 그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이 읽기 방법은 성경의 각 권의 저자가 누구인가? 성경 각 권에 나타나는 이름이 정말 그 저자를 말하는 것인가? 왜 그 저자가 그 성경을 기록하였는가? 그리고 그 저자가 기록을 할 당시의 역사적인 혹은 사회적이거나 경제적인 사정은 어떠하였는가?에 매달려 왔다. 이러한 방법은 본문 뒷면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the true meaning)가 있고, 또 독자(reader)들 자신이 발견하였다고 믿는 증거에 따라서 (구약)성경을 역사적이고 혹은 사회적이거나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서 재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 중심의 읽기 전략은 그 숨겨진 진정한 의미를 찾기보다는, 오늘날 성경을 그 자체 혹은 전체로 보지 못하고, 수많은 파편의 조각으로 찢겨나가게 하였고 그 읽기 전략을 따르는 독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리고 전체로서(as a whole) 성경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읽기 전략의 대표적인 경우는 역사 비평적 구약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⁹ 이 역사 비평은 18세기 시대적 상황, 즉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밀미암아 성경 본문의 실제적이고 문헌적인(realistic and literal) 읽기 전통을 고수하여 본문의 뒷

게 가르칠 것인가?’, 『성경과 신학』 22(1994), 145-178; 강대홍, “구약신학의 최근 동향: 구약신학의 문제점과 제안”, 『성경과 신학』 21(1993), 77-113; 차준희, “구약과 복음: 기독교 신앙을 위한 구약의 가치”, 『성경과 신학』 28(2000), 24-42; 김진섭, “한국 교회를 위한 복음주의 신학의 사명”, 『성경과 신학』 29(2001), 31-57; 이학재, “최근 복음주의의 구약 성경 해석의 동향과 전망”, 『구약신학 저널』 2(2000), 178-194.

⁹ 여기서 역사 비평이란 전통적인 역사 비평을 이른다. 이 방법론에서 보면 자료 비평, 양식 비평, 전승사 비평, 편집 비평을 전통적 역사 비평이라 할 수 있다.

면의 역사적 진리를 추구하였다.¹⁰ 이 방법론은 F.C. Bauer 와 Julius Wellhausen과 같은 학자에 의하여 19세기에 정착되었다. 호주의 구약학자 Edgar Conrad의 지적처럼, 역사 비평적 읽기는 “첫째는 성경 본문을 통해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저자가 기록한 역사적 배경을 따라서 본문을 재형성하는 것이었다.”¹¹ 그 결과 역사 비평가들은 구약의 오경을 모세의 저작이 아니라, 그 본문에서 나타나는 신명의 사용에 따라 혹은 자신들이 구별하여 세운 역사적 배경을 따라 J, D, E, P 기자를 만들어 세우고, 그에 상응하는 책들로 재구성을 하였다. 또 이사야 성경의 경우에 그들은 한 이사야 성경에서 서로 다른 문체와 배경적인 설명으로 인하여 오늘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제 1, 제 2, 제 3 이사야서를 만들어 냈다. 비록 이 읽기 전략이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Ronald M. Buck의 지적에서도 알 수 있는 바 역사 비평이 결국은 성경을 수필, 고전 그리고 일정 부분에서는 실체가 아닌 허구로 전락시켜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¹²

2) 본문 중심의 (구약)성경 읽기

비록 저자 중심의 읽기 전략이 20세기 초에 서구에서 저항할 수 없는 하나의 패러다임이 되었다 할지라도, 1940년대와 50년에 나타난 영미 문학계에 일기 시작한 “신비평”(New Criticism)¹³과 그 이후에 나타난 “구조주의”(structuralism)으로 말미암아 (구약)성경의 읽기 전략을 “저자 중심”에서 “본문(text) 중심”으로 옮겨 놓았다.

신비평은 하나의 문학적 작품(a literary work)이 그 저자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자체가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하나의 작품은 그 작품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본문에 대한 자

¹⁰ Hans W. Frei, *The Eclipse of Biblical Narrative: A Study of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y Hermeneutic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4), 1-13.

¹¹ Edgar W. Conrad, “Reflection on Biblical Reflections”, ARSR 8 (1995), 2.

¹² Ronald Buck, “Meaning, the Author, and the Reader: The Problem of Authorial Intention”, *Memphis Theological Seminary Journal* 31 (1993), 15.

¹³ 신비평이란 용어는 John Crowe Ransom이 1941년에 출판한 그의 책인 *The New Criticism*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1941)의 서명에서 본격적으로 명명되어졌다.

세히 읽기(close reading) 즉 문학 작품의 언어, 문법, 주인공과 줄거리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였다. 성경을 하나의 존재하는 문학 작품으로 읽도록 하였다. 성경을 히브리 시, 지혜 문학, 그리고 장르의 통일성을 보도록 유도했다.¹⁴

구조주의는 작품을 하나의 관습적 구조를 통하여 읽기를 할 때에 작품의 의도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본문의 의미가 저자의 의도를 경시하고 본문 읽기의 관습을 강조하는 것으로 본문을 읽기 혹은 연구의 목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Stephen More는 이런 의미에서 “성경적 구조주의(biblical structuralism)는 성경이 기초하고 있는 초역사적이고 초문화적인 생성시스템의 견지에서 본문을 분석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다.¹⁵ 그렇다면, 본문의 의미는 본문이 구성되어지는 구조에 의하여 형성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신비평과 구조주의는 성경을 하나의 문학 작품(literary work)으로 읽게 하여 독자로 하여금 성경 본문의 의미를 그 본문의 저자에게서가 아니라 본문 자체에서 찾도록 하였다.

3) 독자 중심의 (구약)성경 읽기

1940년대와 50년대부터 성경이 하나의 문학적 작품으로 읽혀져서 저자의 의도가 아닌 본문의 의도를 찾도록 하여 그 결과 성경을 문학적으로 보도록 하였다. 하나, 더욱 최근에는 문예 혹은 문학으로서 본문의 의미는 독자가 독서하는 과정(reading process)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게 되었다. 여기서 문학(예)적 연구는 본문의 의미를 찾을 때에 독자가 어떻게 읽는 본문에 반응을 하느냐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졌다. 이 읽기 방법은 성경 본문을 읽는 수사적 접근과 독자 중심의 접근에서 더욱 분명하게 되어진다. 이 방법은 성경 읽기가 획일화되지 않으며, 그 읽기의 방법이 독자의 다양성만큼이나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본다. 여기서 독자는 “성경을 읽는” 과정에서 그 의미를 찾으며, 그 의미는 그가 배우고 또한 의지하는

¹⁴ For example, see Godon Fee and Douglas Stuart, *How to Read the Bible for All Its Worth*, 2nd, ed. (Grand Rapids: Zondervan, 1993). Robert Alter은 그의 책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Books, 1981: 3- 21)에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와 요세의 이야기: 어떻게 그의 형들이 그를 팔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이야기를 통하여 자세히 읽기(close reading)의 실재를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¹⁵ Stephen Moor, *Literary Criticism*, 182-183.

공동체의 읽기 전략을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다.¹⁶

그러면 독자는 어떻게 성경을 읽는가? 독자는 아무런 전제 없이 읽는 것이 가능한가? 독자는 홀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 독자는 그가 속한 해석학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있으며 그런 연유로 독자는 그가 속한 읽기 공동체의 읽기 전략을 따라 특별한 사회적 위치(social location)에서 읽게 되는 것이다.¹⁷ 게다가 그 독자는 본문과 마주 보고 있기에 본문과의 communication을 하게 되는 상황의 설정을 가지게 되어 본문에서 벗어나서 읽을 수가 없는 것이다.¹⁸ 독자 읽기의 비평가인 W. Iser는 읽기에서 의미는 독자와 본문에서 나온다고 보았다.¹⁹ 또 다른 독자 읽기의 비평가인 Stanly Fish는 본문(text)이 현재의 독자에게는 타자(other)로 다가옴으로 읽기가 해석 공동체에 의하여 견재를 받으며 행하여진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모든 읽기는 독자 자신의 접근법(perspective)에 의거하고 자기 자신(혹은 해석 공동체)이 처한 상황(context)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바르트(R. Barthes, 1977:146)는 여기서 본문(text)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의 본문은 유일한 신학적 의미(저자-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 주는 단어들의 나열이 아니라 전혀 원본이 아니고, 외면되고 불일치하는 글썽의 다양성 속의 다양한 측면으로 형성된 공간이다.”

결국, (구약)성경 읽기는 저자와 본문을 거쳐서 독자에게로 그 미래의 향배가 결정지어지고 있다.²⁰ 이 일은 지난 시간 역사 비평적 성경 해석에 반대하여 왔던 한국의 “보수주의의 목소리” 역시 이제는 하나의 독자로서 분명한 자리를 매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하겠다. 즉, 한국의 전통 보수주의 다시 말하면 개혁주

¹⁶ 오늘날 성경 읽기는 각자가 속한 공동체의 읽기 이데올로기를 소유하고 행하여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David J.A. Clines은 구약성경 자체가 독자에게 분리된 고대의 문헌이 아니라 독자의 삶 속에서 이해되는 책이라고 본다. 그의 책 포스트모더니즘과 이데올로기 성경비평: 히브리 성서 저자들과 독자들의 이데올로기, 김병하, 김상래, 김종윤, 정승우 역, (서울: 한울출판사, 2000)을 참조하라.

¹⁷ Stanly Fish, *Is There a Text in This Class? The Authority of Interpretive Communitie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를 참조하라.

¹⁸ Iser를 참조하십시오

¹⁹ W. Iser, *The Implied Reader*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4); *The Act of Reading: A Theory of Aesthetic Response* (Baltimor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1978)을 참조하라.

의의 성경 읽기가 하나의 읽기의 전략으로 성립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2. 열린 보수주의로서 개혁주의 (구약)성경 읽기

열린 보수주의로서 개혁주의 구약 읽기는 보수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기독교의 3대 원칙인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성경 중심에서 구약을 읽는다 함이다. (구약)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신학을 함(doing theology)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열린 보수주의를 한다고 하면 (구약)성경을 읽는 것이 전제로 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한국 기독교는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해하였다. 한국 교회의 성경 공부는 성경이 한국 그리스도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성경 읽기(독상)를(을) 통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을 요약하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전통적 한국 기독교의 견지에서 본인은 열린 보수주의(혹은 개혁주의)의 구약 성경 읽기를 세 가지 신학 중심 — 하나님, 교회, 그리고 성경 — 적 전제 조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 전제 조건에서 우리는 개혁주의 성경 읽기에서 무엇을 분명히 하고 또 열어야 하는지 살펴보겠다.

1) 하나님 중심(God-centered)의 구약 읽기

“열린 보수주의” 구약 읽기 전략은 구약의 중심이 “하나님”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구약)성경 읽기의 전제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개혁주의 신학에서 근본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구약이 신약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²⁰ 인간이 구약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개혁신학에서 구약과 신약은 분명히 둘 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한다. 이제

²⁰ 총신대학교의 구약학 교수이자 한국신학정보연구원의 원장인 김정우는 구약학의 세계적 동향이 “저자”에서 “다양한 독자” 중심으로 변화가 있음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과거의 해석학적 모델인 역사 비평으로 말미암은 “이념적 해석”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김정우, “21세기 한국 교회와 성서학, 회고와 전망”, 『성서마당』 45(2000), 6을 참조하라.

²¹ 천안대학교의 이화재 교수(2000, 14)는 이것을 신약과 구약은 동등한 “하나님의 경전”이라는 표현으로 그 강조점을 두고자 하였다.

까지는 한국 기독교에서는 구약을 신약과 별개로 취급하고 그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한세대학교의 차준희는 “(보수주의이고 복음주의) 기독교 내에서 구약 성경 없이도 기독교 신학이 가능하다는 의식”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한다.²² 장로회신학대학교의 김중은²³은 이 부분에서 한국 기독교의 강단이 구약을 덜 사용하는 것은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에 더 유용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지적한다.²⁴ 하지만 기독교의 기본이 신약에서 분명히 의지함은 사실이나 신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구약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 언약/ 구속의 측면에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²⁵

구약에서 하나님은 전체의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메노나이트 학자인 Elmer A. Martens는 구약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하나님의 계획”(God’s Design)이라는 관점에서 보았다. 그는 그의 책 *God’s Design*에서 전체적인 통일성의 관점에서 출애굽기 5:22-6:8을 패러다임으로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인 구원, 언약 공동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약속 성취로서의 땅이라는 4가지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더욱이 Martens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구약 전체를 통해서 성취되어 가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신약 성경 속에서도 역시 나타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로 연결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비슷하게, 미국 복음주의 신학자인 William VanGemeren은 그의 책 *The Progress of Redemption*(1988)²⁶에서 성경의 전체적인 그리고 통일된 관점을

²² 차준희, “구약과 복음: 기독교 신앙을 위한 구약의 가치”, 『성경과 신학』 28(2000), 24-25.

²³ 김중은, 『구약의 말씀과 현실』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1996), 337.

²⁴ 한신대학교의 장일선(1993)은 구약이 고등 비평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근본주의적 한국 교회가 기피하였다고 보았다.

²⁵ 여기서 우리는 최근에 번역된 다음의 책들에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W.J. Dumbrell, 언약신학과 종말론, 장세훈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이 책은 호주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Dumbrell의 언약신학의 큰 틀에서 종말론을 조명한 것이다. 그리고 천안대학교 기독교신학대학원의 류호준 교수에 의해 편집된 John H. Stek의 『구약신학: 본문과 해석』 (서울: 솔로몬, 2000)에서도 개혁신학의 강조가 언약에 있음을 잘 설명하고 있다(pp. 80-120).

²⁶ William VanGemeren, *The Progress of Redemption: The Story of Salvation from Creation to the New Jerusalem* (Grand Rapids: Academic Books, 1988).

하나님의 구속사로 두고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신구약을 통하여 서술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그는 분명히 서술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구약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 주고 그리고 그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 주고 있다라고 한다.²⁷ 이 일은 모든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에게도 나타난다.²⁸

그렇다면 개혁주의 구약 성경 읽기에서 지켜져야 하는 것은 구약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한국 교회의 역사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의 예배를 생명처럼 지켜왔다. 구약 성경의 중심이 하나님이 될 때에 개혁신학은 그 근본적인 신학의 고백 sola fide의 강조를 분명히 할 수 있다. 곧 (구약)성경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됨을 고백하는 것이다. 개혁교회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한다.

반면에 개혁주의 구약 성경을 읽기에서는 인간이 그 읽기 중심에 오는 것을 반대하여야 한다. 최근의 개혁주의신학은 내부의 신학적 정리와 더불어 외부의 주제 등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하는 측면에서 인간적인 문제에 집중하여 읽기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주의에서 구약 성경 읽기를 통하여 신학함(doing theology)을 할 때에 하나님을 그 중심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지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신대학교의 역사신학자인 이상규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²⁹

하나님 중심(God centered)이란 한 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중심일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16세기 상황에서 말하면 교황이 중심일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개혁주의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을 엄격하게 구별하며, 인간을 특수한 위치에 두는 신학을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 중심이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의미한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창조주 하나님은 자연과 인간과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강조한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사상이다.

²⁷ VanGemeren, 17.

²⁸ 구약을 하나님 중심으로 읽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더욱 분명히 보여진다. W. Brueggemann도 역시 하나님의 중심을 강조하고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Bernhard W. Anderson 역시 그의 책 *Contours of Old Testament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9)에서 신구약을 하나님 중심으로 본다.

²⁹ 이상규, "한국에서의 개혁주의 신학", 역사신학논총 1(1999), 391.

구약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이상 승배로 간주한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외부와의 역동적인 관계에서 그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일어나는 토착화 혹은 다원주의 구약 읽기와 민중 신학적 구약 읽기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토착화 혹은 종교 다원주의는 90년대에 구약을 통하여 그 읽기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토착화나 다원주의는 포스트 모던의 영향 아래에서 (구약) 성경의 주제를 하나님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옮겨 놓고 있다. 한국 종교의 사정에서의 하나님 이해나 혹은 타종교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자체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인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징계가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심을 선포함으로 시작한다. 신명기에서는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체적인 모임에서 서편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는 것이다. 천안대학교의 김진섭은 제 36차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의 발제를 통하여 이러한 경향이 한국의 보수주의 진영 안에서도 존재하고 있음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⁸⁰ 그는 이들 토착화나 다원주의와 일치와 화해를 주장하는 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참된 이미지를 변개하려고 에덴 동산에서의 하와를 유혹하는 뱀과 같은 존재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그의 지적을 들어보자:

종교 다원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깃발 아래 “타종교와의 대화”라든지, “화해와 일치”라는 형식의 슬로건으로 복음주의 신학의 교리적 내용을 포기하려는 위대한 꾀를 시도하는 오늘의 복음주의 교계의 현실(은) ... 성경이 제시하는 역리적인 모습인 “공홀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시 85:10) 하나님, 즉 죄는 반드시 벌하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오, 죄인은 구원하시나 반드시 주 예수님이 십자가와 대속과 보혈을 통해서만이라는 사랑의 하나님을 모두 거부하고, 구원의 다양한 통로를 제창하고 있는 모습과 같은 맥락이다.

인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은 또한 한국에서는 민중 신학적 읽기에서

⁸⁰ 김진섭, “한국 교회를 위한 복음주의 신학의 사명”, 제 36차 복음주의신학회 발표 원고, <http://www.freechal.com/wmi/자료실>.

나타난다. 혹자는 민중신학이 한국 기독교에 가난한 민중의 삶의 현장을 일깨워 주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구약의 읽기 전략에서 보면 민중신학은 가난하고 힘없는 민중을 하나님으로 간주하고, (구약)성경을 읽을 때에 민중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한다.³¹ 그런 노력들을 통하여 민중신학자들은 구약에서 “가난한” 민중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중신학자들은 민중을 히브리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 즉 레위인, 고아, 과부, 노예, 그리고 이방인으로 이해하였다. 더욱이 그 소외된 민중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이루어 가는 역사적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부각되어진다.³²

결국 구약을 읽는 개혁신학은 구약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서 신약과 구약의 통일성을 선포하며 동시에 신구약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여야 한다. 반면에 구약 읽기가 인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일, 즉 토착화 혹은 종교 다원주의와의 대화를 추구하는 일이나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자체를 성경의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민중 신학적 읽기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³³

2) 성경 중심(Bible-centered)의 구약 읽기

개혁주의 구약 성경 읽기는 “성경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다. 종교 개혁가들의 모토는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었다. 이것은 오늘날 성경을

³¹ 민중신학은 민중을 역사의 주체(subjects of history)로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민중에게 참여하는 자들을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다고 보았다. 안병무는 이런 민중을 요한복음 5:29의 구절에 나타나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명명한다. 안병무, 민중 사건 속의 그리스도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134를 참조하라.

³² 김용복, “하나님의 정치 경제: 경제적 정의의 새로운 개념을 위하여”, in 『예수민중민족』, 안병무 박사 고회 기념 논문집 편집위원 편,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311-315.

³³ 민중신학적 성경 읽기를 하나의 독자 반응의 읽기 전략으로 이해하여 그 가능성을 타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이 읽기 전략을 하나의 독자적인 “독자 반응”으로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독자 반응의 해석법에서 보면 분명 민중신학적 독자도 하나의 독자로 존재한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가 역사 비평을 넘어선 그리고 반신학적 읽기 전략으로 주창하고 나서지만 그들의 방법은 겉으로는 한국적인 이름의 옷을 입고 속으로는 역사비평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그들로 하나의 독자적인 독자가 아니라 역사 비평적인 “또 다른” 독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런 연유로 우리는 민중신학의 읽기가 새로운 읽기 전략이 될 수 없다고 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구약 성경과 한국의 통일: 독자의 입장에서 읽기”, 성서사랑방 11(2000), 38-56을 참조하라.

해석함에 있어서 살아 계시는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을 해석하는 자가 이 고백 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 신학적 구약성경 읽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구약)성경의 무오성을 분명히 전제로 하여야 한다. 서구의 복음주의 학자들 간에는 성경의 무오성에 의견의 일치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 James Packer는 성경의 무오성(inerrance)은 창세기의 아담과 이브를 알레고리적 암호화한다고 보았고 반대로 Francis Scaeffler는 창 1-11의 역사성을 성경의 무오의 결정적 증거로 보았다.³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복음주의 학자인 Donald Bloesch는 이 성경의 무오성은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실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We must never say that the Bible teaches theological or historical error, but we need to recognize that not everything reported in the Bible may be in exact correspondance with historical and scientific fact as we know it today.³⁵

정통적 기독교 신학으로서 개혁신학은 초기부터 성경의 무오성을 소중하게 지켜왔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그 저자 또한 하나님이신 것이다. 이것은 성경의 인간 저자=하나님 (Author=하나님)이라는 등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VanGemenen의 지적처럼은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책이다(The bible is the book of God and man)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사람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성령으로 영감을 주었다는 것이다.³⁶ 웨스터 민스터 신앙 고백 1장 8항에서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과 헬라어로 되어있는 신약 성경은 하나님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감 되었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전통적인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고 정확 무오하다고 고백한다.³⁷

³⁴ Donald G. Bloesch, *Holy Scripture: Revelation, Inspiration & Interpretation, Christian Foundations*,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94), 32.

³⁵ Bloesch, 36-37.

³⁶ VanGemenan, 17.

하지만,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전제 조건 위에서 “성경 중심”의 개혁신학의 구약 읽기는 본문의 “자연스런” 의미를 찾기 위하여 해석하는 방법론적인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개혁신학에서 인정되어 온 방법인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읽기 방법(historical-grammatical method)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면서 성경의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하여 문법적, 역사적, 문헌적(literary) 그리고 문화적인 문맥(context)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읽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³⁸ VanGemenen은 이 방법을 통하여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독자가 하나님의 성령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한다고 보았다.³⁹ 하지만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인 이승구에 따르면 한국 기독교의 성경 해석이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하면서도 문자적인 것만을 고집함으로써 구약의 종말적인 강화나 예언은 잘못 해석되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또한 지나친 영해로 인해서 풍유적인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시사했다.⁴⁰ 결국, 문자적이거나 풍유적인 해석적 방법만을 획일적으로 고집하게 되면 개혁주의적인 성경 해석에서 성경 본문에 대한 신앙을 약화시킬 수 있다.

반면에,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전제 위에서 해석학적 방법론의 유용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성경 비평학 — 전통적 역사 비평, 자료 비평, 전승사 접근, 편집 비평, 서사 비평, 수사 비평 등 — 은 오랫동안 성경의 권위를 파괴한다고 보아왔고, 또한 그런 측면에서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악마시하여 왔다. 하지만 천안대학교의 구약 교수인 이학재는 최근 복음주의 학자들 사이에서 해석의 방법의 다양함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진리는 단일한 것이라 할지라도”⁴¹ (구약)성경의 본문 자체의 강조와 그 본문의 배경 그리고 신학적인 해석을 위하여 성경 해석학의 제 방법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본다.⁴² 결국 그는 이런 해석의 방법의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속한 “교단적 배경을 따라서 성경 해석

³⁷ 김영한, “한국개혁신학은 어디로” 『한국개혁신학』, vol. 1 (1997), 7-8. 이 일은 초기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아빙돈 주석의 번역 사건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아빙돈 주석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즉 무오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한국 기독교가 반대한 것은 중요한 것이다.

³⁸ VanGemenen, 27-28.

³⁹ VanGemenen, 28.

⁴⁰ 이승구, 『개혁신학탐구』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9), 46-47.

⁴¹ 이학재, “최근 복음주의 구약성경 해석의 동향과 전망”, 4.

⁴² 이학재, 『구약성경에서 배운다』 (서울: 이레서원, 2001), 11-63.

을 고백한다”고 보았다.⁴³ 고려신학대학원의 구약 교수인 이성구도 역시 그 방법론의 유용성에는 동의한다. 그에 따르면 성경 본문의 원본이 없는 사정에서 본문에 대한 좀더 정확한 접근을 하기 위하여 비평 방법론적 선택은 신앙 속에서(in faith)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주고 있다.⁴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김종은은 “고등 비평을 통한 성경의 구체적인 문제점들도 철저히 연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지적한다.⁴⁵

요약적으로, 성경 중심의 개혁신주의 성경 읽기는 하나님 말씀으로서 성경의 무오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전제, 즉 무오성을 확정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성경 해석의 제 방법을 대승적인 측면에서 사용할 때에야 진정으로 개혁신주의 성경 읽기가 가능한 것이다.

3) 교회 중심(Church-centered)으로 읽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혁신주의 구약 성경 읽기는 읽는 교회 중심(Church-centered)이어야 한다. 종교 개혁가들에게 있어서 교회란 일차적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무형적인 불가견한 교회(invisible church)이고 이차적으로 이 지상에 존재하는 불완전하고 가견적인(visible church) 교회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개혁가들은 불완전한 지상의 교회가 개혁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 건설을 소망하였다. 즉, 이 일은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이 (1)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그리고 (2) 하나님의 동반자임(partnership)을 이해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구약)성경 읽기에서 분명히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 이사야서 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징계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임을 분명히 말하여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열방과 열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66:18)라고 예배를 묘사하고 있다. 또한 느헤미야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로의 포로에서 돌아온 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이 되었을 때 “그 처소에서 그 하나님 여

⁴³ 이화재, 『구약성경에서 배운다』 (서울:이레서원, 2001), 53.

⁴⁴ 이성구, “성경 해석과 비평학”, in 『개혁교회의 정로』, 허순길박사 은퇴 기념 논문집, (천안: 고려신학대학원 출판물, 1999), 65-80.

⁴⁵ 김종은, “복음주의 구약학이란 무엇인가?” 『성경과 신학』, vol. 19, 79.

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사분지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9:3)라고 예배의 강조가 나타나고 있다. 웨스터 민스트 신앙 고백 25조 1항과 25조 5항에서도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분명한 것은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낭독)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웨스터 민스트 신앙고백 21조 5항에서는 그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 규정되어 있다:

[T]he reverent and attentive reading of the Scriptures; the sound preaching and conscientious hearing of the word in obedience to God with understanding and faith; singing of psalms with grace in the heart; and the proper administration and right receiving of the sacraments instituted by Christ. Then there are religious oaths and vows, solemn fasting, and thanksgiving on special occasions. Worship should include these at appropriate times, and they should be performed in a holy and religious manner.⁴⁶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날 “열린 예배”에 대한 관심은 개혁주의 신학의 교회 중심의 성경 읽기에서는 그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⁴⁷ 열린 예배는 현대 교회에서 잃어버린 젊은 층을 다시금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데 그리고 신앙을 찾아 방황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는 성공하였다 할지라도⁴⁸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보다는 인간의 감성과 현대의 음악이 일차적으로 강조되므로 (구약)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있다.⁴⁹ 예를 들면, 이사야서의 읽기(사 65장)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회복, 즉 예루살렘의 하나님 예배의 회복이 열방의 회복을 일으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

⁴⁶ 진하게 된 부분은 본문의 강조임.

⁴⁷ 한국에서 “열린 예배”에 대한 관심은 목회와 신학에서 1997년 4월호 특집으로 다루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고 한국 교회 전반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⁴⁸ 여기서 우리는 이 새로운 열린 예배의 형식을 통하여 부흥하는 교회를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교회로서는 매주 25,000명 이상이 출석하는 미국 LA의 코스타 메사에 있는 갈보리 채플(Calvary Chapel)을 들 수 있다.

⁴⁹ 이 문제 대하여서는 김병원 외, 『열린 예배, 무엇이 문제인가?』(부산: 고신대학교 출판사, 2000)를 참조하라.

국, 구약에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예배의 순수성을 강조함을 읽을 수 있지 예배의 변형을 받아들이거나 구도자를 초청하는 행위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개혁주의 구약 성경 읽기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동반자로서 선포해야 하는 것이다. 이 일을 복음주의 신학회의 회장인 김영한은 “변혁적 문화신학”이라고 한다.⁵⁰ 즉, 이 땅에서의 문화적인 사명을 기독교 교리와 전통이 성경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독자의 상황에서 성경의 고유한 텍스트의 의미를 각색하고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성경 본문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독자, 즉 신앙 공동체가 “지금”이라는 현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변혁의 힘을 찾는 것이다.⁵¹ 여기에서 김영한은 분명히 말하기를 변혁의 힘이란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과 경건의 열매”⁵²라고 한다. 이것을 수사학적으로 그리고 사회학적으로 이해하는 미국 장로교 신학자인 W. Bruggemann은 (구약)성경의 드라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partner로 나타난다고 보았다.⁵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 임무가 부여되는 것이다. 여기에 동조하면서 Bernhard W. Anderson은 그의 책 *Contours of Old Testament*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 주체인 하나님(YHWH)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자(the Holy One of Israel)로 나타나시며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있음을 주목한다⁵⁴

요약하면, 교회 중심으로 (구약)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개혁주의 독자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그 중심에 있는 예배를 회복하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정의와 뜻이 나타

⁵⁰ 김영한, “21세기와 신학의 새 패러다임: 변혁적 문화 신학의 착상”, in 『21세기와 개혁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개혁주의신학회 논문집 8(2000), (서울: 이레서원, 2000), 11-29.

⁵¹ 김영한, 20-21.

⁵² 김영한, “한국개혁신학은 어디로”, in 『한국개혁신학』, 한국개혁신학논문집 1(서울: 이레서원, 1997), 22.

⁵³ Walter Brueggemann,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Testimony, Dispute, Advocac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407-566. 이 책 이전에 Brueggemann은 그의 책 *성서로 본 땅*, 강성열 역, (서울: 나눔사, 1994)에서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이 땅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이라고 보았다.

⁵⁴ Bernhard W. Anderson, *Contours of Old Testament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9).

나도록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결론

결론적으로, “열린 보수주의”로서 개혁주의 구약 성경 읽기는 구약 읽기를 통하여 모호해져 가는 개혁주의의 전통을 바라보면서도 그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폐쇄성을 뛰어넘어 한국 기독교의 개혁주의(보수주의)를 새롭게 조명하고 확립하는 것이다. 세계 구약 성경 읽기의 전략은 이제 역사 비평의 패러다임 — 즉, 저자 중심 — 에서 본문과 독자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사정에서 이제까지 한국 기독교, 즉 보수 교회는 자체의 identity 문제와 외부로부터의 압박 — 자유주의와 급진주의에의 영향 — 에서 벗어나서 전(정)통적 한국 기독교인 개혁주의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구약을 읽는 기독교 독자로 하여금 그 울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혁주의가 구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그 울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분명히 전통 개혁 교회의 원칙이었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의 읽기 전략의 구축이 있어야 함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그 전략을 통하여 개혁주의 신학은 구약 성경의 읽기가 인간 중심주의로 변개됨을 막고 하나님의 주권을 새롭게 회복하며, (구약)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무오하다는 근본적인 신앙의 바탕에서 본문이 오늘의 변화는 사정에서 재해석할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가 바른 예배를 찾는 모범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뜻을 한국이라는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고 신학을 하여야 한다.